

202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10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 —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

성경: 엡 1:4-5, 5:26-27, 히 2:10-11, 살전 5:23

[엡 1:4-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sup>(5)</sup>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엡 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sup>(27)</sup> 또한 접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sup>(11)</sup>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I.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겪으신 가장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변화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이다 — 요 1:14, 29, 3:14, 12:24, 행 13:33, 벰전 1:3, 고전 15:45 하, 행 2:36, 5:31, 히 4:14, 9:15, 7:22, 8:2.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 13: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벰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행 2: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행 5: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 4: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히 9:15] 이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위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 7:22]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 8: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장막의 사역자입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 A. 이 변화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사람이 되실 때, 곧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시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심으로써 많은 하나님-사람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이 되실 때 통과하신 과정들이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 요 1:14, 12:24, 골 2:9.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 B.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사람의 줄들로, / 사랑의 끈들로 /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하시며, 이 변화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된다.

[호 11:4] 사람의 줄들로, / 사랑의 끈들로 /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 그들에게 그 턱의 멍에를 벗겨 주는 이 같았으며 / 부드럽게 그들을 먹였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들(변화들,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이 모든 단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도달된다 — 렘 31:3, 요 3:14, 16, 6:44, 12:32, 롬 5:5, 8, 요일 4:8-10, 16, 19.

[렘 31: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입니다.

[요 12:32]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롬 5: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롬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일 4:8-10]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sup>(9)</sup>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sup>(10)</sup>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굴복시키는 사랑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

3.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오직 사랑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 롬 8:35-39, 고전 13:8-11, 렘 31:3.

[롬 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험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sup>(36)</sup>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sup>(37)</sup>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sup>(38)</sup>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sup>(39)</sup>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전 13:8-11]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sup>(9)</sup>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언하지만, <sup>(10)</sup>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sup>(11)</sup>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렘 31: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C. 아득한 옛날로부터 곧 영원의 날들로부터 삼일 하나님은 영원에서 나오시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곧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 미 5:2.

[미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1. 육체 되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신격을 지닌 분으로서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신격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생명과 본성에서만 하나님이다.

2.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을 신화하려는 것,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 영은 한 영이며(롬 8:16, 고전 6:17), 우리의 영은 지금 ‘거룩한 영’이다(고후 6:6).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후 6: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3. 따라서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대하지 말며,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길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는 길이며,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그 영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길이다 — 계 22:17 상, 롬 8:4, 갈 5:25, 롬 1:9, 빌 3:3, 비교 겔 1:15-21.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함시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겔 1:15-21] 내가 생물들을 살펴보다 생물들 걸 땅 위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네 얼굴에 따라 바위가 하나씩 있었다. <sup>(16)</sup> 바퀴들의 모습과 만듦새는 녹주석처럼 보였다. 그 넷은 한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그 모습과 만듦새가 마치 바퀴 안에 바위가 있는 것 같았다. <sup>(17)</sup> 그것들은 어디로 가든 정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나아갈 때에는 도는 일이 없었다. <sup>(18)</sup> 그 테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높고 두렷했다. 그 넷의 테는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였다. <sup>(19)</sup> 생물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들이 그들 곁에서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 위로 들릴 때에는 바퀴들도 들렸다. <sup>(20)</sup> 그 영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들도 그 영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들렸는데,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sup>(21)</sup> 그들이 나아가면 이것들도 가고, 그들이 멈추어 서면 이것들도 멈추어 섰다. 그들이 땅 위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들렸는데,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4. 사도행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고, 하나님은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다. 이처럼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행자, 곧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 행 16:6-10.

[행 16:6-10]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sup>(7)</sup>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sup>(8)</sup>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sup>(9)</sup>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sup>(10)</sup> 바울이 그 이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다.

## II.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 엡 1:4-5.

[엡 1:4-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sup>(5)</sup>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A.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엡 1:4).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벧전 1:15-16, 벧후 1:4, 히 12:14).

[엡 1: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벧전 1:15-16]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sup>(16)</sup>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12:14]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B.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엡 1:5).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요 1:12-13, 3:6, 요일 5:11-12).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sup>(13)</sup>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sup>(12)</sup>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 에베소서 1 장 4 절과 5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음을 계시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목적 혹은 목표로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롬 8:23)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이다(계 21:2, 9-11).

[엡 1:4-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sup>(5)</sup>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11]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sup>(10)</sup>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sup>(11)</sup>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 히브리서 2 장 10 절과 11 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sup>(11)</sup>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III.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 A.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살전 5:23, 요 17:17, 엡 5:26-27, 고전 6:11, 12:3 하, 히 12:4-14, 롬 8:28-29, 엡 4:30, 살전 5:19, 계 2:7 상, 시 73:16-17, 25-26.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엡 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sup>(27)</sup>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6:11]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 12:4-14]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sup>(5)</sup> 아들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건네신 다음과 같은 권유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sup>(6)</sup>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sup>(7)</sup>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sup>(8)</sup> 모든 아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sup>(9)</sup>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sup>(10)</sup>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sup>(11)</sup>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sup>(12)</sup>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바로 세우고, <sup>(13)</sup>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절룩거리는 다리가 탈골되지 않고 오히려 고쳐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up>(14)</sup>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sup>(29)</sup>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4: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살전 5:19]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시 73:16-17]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sup>(17)</sup>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sup>(26)</sup>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뒤편이십니다.

- B.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 — 벰전 1:2, 눅 15:8-10, 17-21, 요 16:8-11.  
 [벰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눅 15:8-10]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sup>(9)</sup> 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sup>(10)</sup>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눅 15:17-21]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sup>(18)</sup>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sup>(19)</sup>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sup>(20)</sup>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sup>(21)</sup>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 16:8-11]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받게 하실 것입니다. <sup>(9)</sup>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sup>(10)</sup>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sup>(11)</sup>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C.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 히 13:12, 9:13-14, 10:29.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 9:13-14]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sup>(14)</sup>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 D.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창조물이 되게 한다 — 요 1:12-13, 고후 5:17, 갈 6:15.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sup>(13)</sup>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갈 6: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 E.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 롬 12:2 하, 6:4, 7:6, 엡 4:23, 겔 36:26-27, 고후 4:16-18.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은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낚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엡 4: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겔 36:26-27]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sup>(27)</sup>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고후 4:16-18]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sup>(17)</sup>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sup>(18)</sup>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F.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가 되게 한다 — 고전 3:12, 고후 3:18.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G.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하심, 곧 형태 짓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히 참여하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소유함으로 견고하게 된다 — 롬 8:28-29, 히 6:1 상.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sup>(29)</sup>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H.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빌 3:21, 롬 8:23.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IV.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 고전 15:45 하, 살전 5:23, 엡 5:25-27, 아 8:13-14.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sup>(26)</sup>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sup>(27)</sup>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8:13-14]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sup>(14)</sup>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A.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출 17:6, 고전 10:4, 요 7:37-39, 계 7:17, 21:6, 22:1, 17).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sup>(38)</sup>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sup>(39)</sup>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계 7:17]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1: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B. 에베소서 5장 26 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출 30:18-21). 매일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야 한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출 30:18-21] “너는 또한 씻는 데 쓸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sup>(19)</sup>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sup>(20)</sup>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곧 여호와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도 <sup>(21)</sup>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씨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C.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엡 5:26).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막 14:72, 눅 1:35-38, 5:5, 24:1-8).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막 14: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눅 1:35-38]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sup>(36)</sup>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자도 노년에 아들을 가져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습니다. <sup>(37)</sup>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sup>(38)</sup>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천사는 떠나갔다. [눅 5:5]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눅 24:1-8]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sup>(2)</sup>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sup>(3)</sup>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sup>(4)</sup> 그들이 이 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보아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sup>(5)</sup>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그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sup>(6)</sup>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sup>(7)</sup>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up>(8)</sup>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 D.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 마 4:4, 요 6:63, 계 2:7, 22:17 상, 비교 사 6:9-10, 마 13:14-15, 행 28:25-31.

[마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사 6:9-10]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 ‘잘 들어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 잘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sup>(10)</sup>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 귀를 어둡게 하며 / 눈을 감기게 하여라. /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 마음으로 알고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마 13:14-15] 또한 이사야의 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sup>(15)</sup>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행 28:25-31] 그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떠나려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신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sup>(26)</sup>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sup>(27)</sup>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sup>(28)</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sup>(29)</sup>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면서 떠나갔다. <sup>(30)</sup> 바울은 만 이 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sup>(31)</sup>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 E.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 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눅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출 38:8).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이다 — 계 2:7, 삼상 3:1, 21, 암 3:7.

[출 38:8] 그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는데,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삼상 3:1]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

[삼상 3: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와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암 3:7] 정녕 주 여호와와 자기 비밀을 그의 종 신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F.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 히 3:7-11, 15, 4:7, 시 95:7-8.

[히 3:7-11]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sup>(8)</sup>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sup>(9)</sup>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sup>(10)</sup>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sup>(11)</sup>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 3: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히 4:7]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시어 ‘오늘’이라 하시고, 전에 언급된 대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시 95:7-8]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 우리는 그분 풀밭의 백성, / 그분 손의 양 떼일세. /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sup>(8)</sup> 프리바에서처럼, 광야 맞사의 날처럼 /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 G.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눅 1:38, 10:38-42, 엡 1:5.

[눅 1:38]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천사는 떠나갔다.

[눅 10:38-42]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sup>(39)</sup>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sup>(40)</sup> 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sup>(41)</sup>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sup>(42)</sup>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엡 1: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H.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비교 출 33:12-17, 히 11:8.

[출 33:12-17]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sup>(13)</sup>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sup>(14)</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sup>(15)</sup>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sup>(16)</sup> 이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sup>(17)</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히 11:8]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 I.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 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꿈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재이다.
- V.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계 21:2, 10)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7 절)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11, 23 절)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사람(3, 22 절)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이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계 21: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계 21: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21: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